

아마추어 골퍼 168명 샷 대결...‘프로급’ 실력·매너 뽐냈다

제11회 DK·광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시상식

본사 MVG라운지...신페리오 우승 등 13명 부문별 수상
전용준 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 “발전하는 대회 만들 것”

지난 2일 전남 나주 골드레이크CC에서 열린 ‘제11회 DK·광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부문별 우승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 DK㈜(회장 김보곤)가 주최하고 광남일보(사) 광남문화체육재단, 전라도인이 주관한 이번 대회 시상식은 11일 오후 2시 본사 사옥 1층 MVG라운지에서 전용준 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 결과 남녀부 1위인 조은철씨(총 타수에서 핸디캡을 뺀 네트스코어 69.2타)와 김정숙씨(70.8타)가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들에게 상금 100만원이 안겨졌다.

남녀부 각각 2위를 차지한 박철씨(69.8타)와 서현씨(71타)에게는 준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원이 전달됐다.
남녀부 3위의 주인공인 정철씨(70.2타)와 윤순오씨(71타)는 기념 트로피와 상금 3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남자부에서 가장 멀리 드라이버 샷을 날

린 롱기스트(장타상)는 이두영씨(240m)에게 돌아갔다. 티샷을 쳐서 홀컵에 가장 가깝게 공을 붙인 니어리스트(근접상)는 박근성씨(2m)가 받았다. 이들에게는 상금 2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특히 안운만씨는 이번 대회에서 홀인원의 주인공이 됐다. 벨리코스 8번홀에서 홀인원을 달성한 그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만원이 주어졌다.
그로스 스코어(실제 타수) 70타를 친 김성남씨는 데일리 베스트 트로피와 상금 30만원을 받았다.
여자부 롱기스트는 171m를 날린 윤미양씨가 받았고, 니어리스트는 1.8m를 기록한 박상임씨가 차지했다. 이들에게도 각각 상금 20만원이 돌아갔다.

데일리 베스트상은 69타(그로스 스코어)를 친 박은화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녀는 트로피와 상금 30만원을 수상했다.
전용준 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은 이날 “수려한 풍경과 환상적인 코스로 이름난 골드레이크CC에서 이번 대회를 열게 돼 기쁘다. 골드레이크CC 관계자분과 원할



11일 광남일보 MVG라운지에서 열린 제11회 DK·광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시상식에서 전용준 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한 경기 진행을 맡아준 광주시골프협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린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수상자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11회를 맞은 광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의 골프대회를 넘어 전국 아마추어 골퍼들이 관심을 갖는 대회로 성장해가고 있다”며 “광남일보는 이 대회가 앞으로도 전국 아마추어 골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수상자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1회 DK·광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에는 만 25세 이상 총 168명(42팀)의 전국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했다. 경기는 남자부(26팀)와 여자부

(16팀)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골프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친목 도모 등이 대회 취지인 만큼 숨김 홀을 지정해 핸디캡을 적용하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동반자들과 즐거운 라운딩...화합의 장 계속되길”

남자부 우승자 조은철씨

“첫 우승입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광남일보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일 전남 나주 골드레이크CC에서 열린 ‘제11회 DK·광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에서 네트스코어(총 타수에서 핸디캡을 뺀 스코어) 69.2타로 신페리오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조은철씨는 “우승을 목표로 하진 않았는데 동반자들과 마음 편하게 치다 보니 결과가 좋았다. 신페리오 적용으로 1위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주 한두 번 정도 연습장을 나가면서 경험을 쌓았다는 그는 벌써 골프에 입문한 지 30년이 됐다.

골프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당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게 된 그는 항상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둔다.
부담 없이 천선골프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부드러운 스윙으로 연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은철씨는 “이번이 3번째 광남일보배 참가였다. 골프 실력과 상관없이 다음에는 더 많은 분과 함께 즐기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뜻하지 않은 우승...다음 대회도 좋은 성적 낼 것”

여자부 우승자 김정숙씨

“생각지도 못한 신페리오 우승을 달성하게 돼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2일 전남 나주 골드레이크CC에서 열린 ‘제11회 DK·광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에서 네트스코어(총 타수에서 핸디캡을 뺀 스코어) 70.8타로 신페리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김정숙씨는 “광남일보배 첫 우승을 달성하게 돼 영광이다. 이번 대회 골프장 선택도 좋았고, 코스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 평소보다 더 실력이 잘 발휘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에게 골프채를 선물 받아 골프를 시작하게 됐다는 그는 올해로 골프에 입문한 지 25년이 됐다.

평소에도 운동 모임에서 열정적으로 훈련한다는 그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꾸준한 연습으로 꼽았다.

김정숙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연습장을 찾아 훈련한다”며 “또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드에 나가 실전감각 익히는 것도 잊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남일보배에 자주 참가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과 함께 다음 대회에도 참가해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완도유소년 야구단, 전국대회 첫 우승

창단 1년만...화성특례시장배 꿈나무 리그

완도군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 참가한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팀 창단 후 1년 만에 전국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화성특례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총 134팀, 2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로, 새싹·꿈나무·유소년·주니어 등 총 7개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완도유소년 야구단은 이번 대회에서 유소년 리그(5학년 이상), 꿈나무 리그(5학년 이하)에 참가했다.

꿈나무 리그는 8강전에서 의정부 경민을 12대 5, 4강전에서 비드림을 상대로 10대 6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HBC를 만나 8대5로 승리해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다.

HBC 유소년 야구단은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팀으로, 올해 3월 횡

성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우승했던 팀이다.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은 지난 3월 ‘제10회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이후 3개월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야구 불모지인 완도에서 이뤄낸 큰 성과이며 야구 유망주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유소년 리그에서는 22강에서 수원 장안구, 16강에서 KT 위즈를 꺾고 8강에 진출했으나 휘문아카데미에 4대2로 아쉽게 역전패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 참가한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스포츠클럽위 박용규·인권경영위 김홍식씨 위원장 위촉

대한체육회 위원장 2명...전남 체육인 17명. 위원회 위원 영예 박 위원장 보성·김 위원장 함평 출신...중앙체육 행정 참여 확대

전남 체육인이 대한체육회 각종 위원회에 대거 위촉됐다.

1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최근 발표한 대한체육회의 각종 위원회 구성 결과, 전남도 출신 또는 소속 체육인 17명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됐다.

먼저 전남체육 진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위원장에 2명이 선임됐다. 스포츠클럽위원회 위원장에는 보성 벌교 출신의 박용규 경기도배구협회장(전별교제이고 배구부 감독)이,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홍식 동신대학교 명예교수(함평 출신)가 각각 임명됐다.

스포츠클럽위원회는 스포츠클럽 육성 과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등 정책 전반을 다루며, 인권경영위원회는 체육계 인권 보호와 인권경영 강화를 책임진다.

특히 박용규 위원장 선임으로 스포츠클럽 공모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김홍식 위원장 역시 전남도체육회 상

임부회장을 역임한 이력으로 전남체육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다양한 분야의 전남체육인들도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되는 영예를 안았다.

생활체육위원회에는 이병돈 강진군체육회장(강진)과 안정진 전남도체육회 이사(고흥), 경기력향상위원회에는 전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화순), 스포츠복지위원회에는 노철민 무안군복싱협회장(무안), 홍보미디어위원회에는 장철호 프라임경제신문 호남본부장(해남), 스포츠복지위원회에는 정성인 장흥군체육회장(장흥), 정병환 영광군체육회장(영광), 문영준 전남펜싱협회장(장성)이 위촉됐다.

또한 지방체육위원회에는 정형찬 화순군체육회장(화순), 종목육성위원회에는 신정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보성)과 윤병용 전남우수협회장(순천),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는 안용준 전 전남도체육



박용규 위원장

김홍식 위원장

회 이사(장성), 스포츠영양안전위원회에는 어성준 전남도체육회 이사(무안), 인권경영위원회에는 임다연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학교체육위원회에는 권형선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고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위촉된 지난 5월 23일부터 2027년 2월 정기총회 전일까지 2년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위촉은 전남 체육인의 역량과 현장 경험이 대한체육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남도체육회는 소속 체육인들이 중앙 체육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